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2018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 및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 출사표

“목표는 챔피언 진출 · 우승”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개최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 시범전이 각기 우승과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은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2016~2017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승기 감독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승한다고 큰 소리를 쳤고, 행동으로 옮겼다. 맛을 봐서 올 시즌에도 하고 싶다고 올 시즌에도 우승을 목표로 삼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선수 구성이 가장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은 서울 SK의 문경은 감독과 전주 KCC 추승균 감독은 각각 “2년간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SK다운 농구를 해서 명문팀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시즌을 만들겠다.”

▲10개 구단 감독 출사표

▲이상범 DB 감독 =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다보니 울렁증이 있다. 복학생이다보니 떨린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인 만큼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도 생긴다. 올 시즌 선수 구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지금보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거침없는 플레이를 하면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외국인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이상민 삼성 감독 = “작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좋은 결과를 냈다. 올 시즌에

는 김준일 임동삼이 군대를 가서 멤버 구성이 지난 시즌보다 약해졌다. 높이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은 팀이 됐다. 높이는 낮아졌지만 스피드 있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목표보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 해서 마지막에 웃는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경은 SK 감독 = “2년간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즌을 기다렸다. SK다운 농구를 해서 명문팀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시즌을 만들겠다.”

▲현주엽 LG 감독 = “처음 맞는 시즌이라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훈련을 열심히 했다. 외국인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으면 예전보다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응원해주고 지켜봐달라.”

▲추일승 오리온 감독 =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 손실이 많은 팀 중 하나다. 평가도 약체로 하더라도 하지만 공은 통글다. 선수들이 착실하게 준비했고, 잠재력이 있다. 오리온 다운 농구를 보여겠다.”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 =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올 시즌 첫 목표는 외국인 선수 선발이고, 두 번째는 국내 포워드인 항상 세 번째는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조화였다. 빅맨을 뽑으려 했지만 빅맨이 없어서 조쉬 셀비를 뽑았다. 외국인 선수에게 해결사 역할을 맡기려 한다. 작은 선수를 뽑아서 인사이트에서 국내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격 쪽에서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쪽으로 준비했다. 박찬희는 손가락

부상으로 준비를 잘 하지 못했지만, 셀비와 좋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챔피언전을 가고 싶다.”

▲추승균 KCC 감독 = “2년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첫 해 1위를 하고 지난 시즌에는 꼴찌를 했다. 올해 선수들이 부상없이 비시즌을 치렀고, 우리 팀에 이정현을 영입했다. 1라운드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올 시즌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한 계단씩 올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김승기 KGC인삼공사 감독 = “지난 시즌에 여기서 우승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 말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맛을 봐서 올 시즌에도 하고 싶다. 우승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준비를 잘 했으니 시즌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고 후반에 승부를 걸겠다. 올 시즌에도 목표는 우승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

▲조동현 kt 감독 = “kt가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와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다. 올 비시즌에 중점을 둔 것은 일단 부상이었다. 2년간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한 패배의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선수들이 감독 의중을 알고 잘 따라왔다. 지난 시즌 못 보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서 kt만의 농구를 보여겠다.”

▲유재화 현대모비스 감독 = “올 시즌 모비스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내고 싶다. 하나는 성적, 하나는 발전이다. 양동근 합지훈이 견제할 때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 전준범, 이종현이 모비스 가동이 되기 위해 많은 발전을 해야한다.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뉴시스

프로농구, 감독들이 꼽은 우승후보

‘KCC · SK’ ... 복병은 전자랜드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들이 우승후보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전주 KCC와 서울 SK였다.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이상민 서울 삼성 감독과 문경은 서울 SK 감독, 김승기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 유도훈 인천 전자랜드 감독은 모두 우승후보로 KCC를 꼽았다.

이상범 원주 DB 감독과 조동현 부산 kt 감독, 추승균 KCC 감독은 SK를 우승후보로 지목했다.

현주엽 창원 LG 감독은 SK와 KCC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고 유재학 울산 현대모비스 감독과 추일승 고양 오리온 감독은 모두 전자랜드를 선택했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역대 최고액(9억2000만원)을 투자해 이정현을 영입한 KCC는 기존의 안드레 에밋과 전태풍, 하승진에 젊은 피 송교창까지 있어 멤버 구성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성기를 함께 보낸 외국인 선수 애런 헤인즈를 다시 데려온 SK는 테리코 화이트와 재계약하고 김선형과 2년차 최준용 등이 버티고 있어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KCC를 우승후보로 지목한 이상민 감독은 “지난 시즌에 KCC가 부상

선수가 많아 고전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좋은 멤버 구성에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이정현이 합류해 에밋에 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한 명의 해결사가 더 생긴 셈”이라며 “공격적 상황만 잘 조절하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문경은 감독은 “KCC가 우승 후보로 지목되는 것은 멤버 구성이 전력의 80%를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문경은 감독은 “좋은 구성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문제다. 제가 해이할 뉘이고 속제”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문경은 감독과 추승균 감독은 각각 지고싶지 않은 팀으로 KCC와 SK를 적었다.

문경은 감독은 “KCC를 적고 쳐다봤더니 SK를 적었다. 별다른 뜻 없이 KCC가 우승 후보라고 가장 많이 꼽혀서 그랬다”며 “KCC에 지지 않는다면 상위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승균 감독은 “SK는 선수 구성이 좋고 포지션마다 선수들이 있다. 헤인즈도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랜드를 우승후보로 꼽은 유재학 감독은 “스피드와 높이 조적

력, 어려울 때 골 결정해 줄 선수 등 모자란 것이 없다.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우승 후보들도 한 가지씩 약점이 보이는데 전자랜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유도훈 감독은 “팀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영삼 박찬희 정병국 등 가드 라인에 관측은 선수들이 있지만 포워드 라인에서 스타가 태어나야 농구 발전에 좋을 것 같다. 포워드 라인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하고도 한 팀에게도 우승 후보로 꼽히지 못한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승기 감독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승기 감독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미디어데이에서 우승후보로 거론이 되지 않아 기분이 안 좋다. 올해도 챔피언결정전 상대를 찾겠다. 챔피언결정전에서 SK나 KCC를 상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SK와 KCC는 모두 멤버가 좋다. 반면 우리는 좋은 선수 3명이 빠져있다. 어떻게든 맞춰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똑하게 마음 먹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메시, 표류하던 아르헨티나 구출

12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표류하던 아르헨티나를 구했다.

아르헨티나는 11일(한국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 10차전에서 에콰도르를 3-1로 꺾었다.

이 경기 전까지 6위에 머무르며 러시아행이 불투명했던 아르헨티나는 승점 28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며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1974년 독일대회부터 12회 연속 출전이다.

승리 외에는 돌파구가 없었던 아르헨티나는 시작부터 악몽에 빠졌다. 전반 38초 만에 에콰도르의 기습 공격에 선제골을 내줬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던 상황을 정리한 선수는 메시였다. 메시는 전반 12분 앙헬 디 마리아(파리생제르망)의 패스를 왼발솨으



로 연결해 왼발솨의 시도를 일궜다.

메시의 득점표는 8분 뒤 재가동됐다. 상대 수비진의 패스를 가로챈 메시는 골대 상단을 향하는 강력한 슈트로 팀에 2-1 리드를 안겼다.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17분에도 메시의 득점이 터졌다. 수비 방벽로 균형을 잃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다. 승리를 직감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메시에게 달려들어 환호했다.

남미예선 최종전에서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여러 팀의 운명이 바뀌었다. /뉴시스

출전에 시청률도 푹 | 축구 대표팀 모로코전 6.6%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모로코와 가진 평가전이 6%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11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MBC TV에서 전파를 탄 한국과 모로코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6.6%였다.

서울에서 5.6%로 조사됐고, 수도권 시청률은 6.7%였다. 지난 7일 열린 러시아 평가전 시청률은 10.6%였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스위스 빌/비엔트의 티소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전을 1-3으로 패했다. 대표팀은 러시아전에서도 2-4로 졌다. 한편 같은 날 첫 방송된 ‘철부지 브로망스 용머리왕’은 전국 평균 시청률 4.8%를 기록하며 출발했다.

경쟁자인 SBS TV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은 5.7% 시청률을 보였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